창간정신
1. 영생대도의 실천
2. 영생학의 보급
3. 영생문화의 창달

승리신문

자유율법
주님을 초초로 바라보고 고도로 사모하라. 나라는 존재의식을 초초로 죽이고 짓이겨라. 형제의 죄를 내 죄로 여겨라. 인류는 한몸 누구든지 내몸처럼 여겨라.

1985년 1월 18일 창간 隔週刊 제 678 호 The Seungni Shinmun 2015년 1월 1일 목요일

경축 35회 이슬성신절

"전 세계 만민들이여! 온 누리에 가득 찬 이슬성신(甘露) 먹고 영생하자"

승리제단은 새해 첫날을 '이슬성신절'로 경축하고 있다. '이슬성신'은 마귀를 이기신 하나님의 영생하는 영이며, 성령의 빛이다. 그 이슬성신을 경축하는 날이 '이슬성신절'이다.

'이슬성신절'의 기원

'이슬성신절'은 1981년 1월 1일 처음 제정되었다.

전도관의 설립자 박태선 장로님은 인류 역사 이래 처음으로 이슬성신의 은혜를 받은 존재이다. 그분의 간증에 의하면 6.25전쟁이 일어난 후 평택에서 피난하여 있던 중 생시에 옥함(玉函)에 안개와 같기도 하고 이슬과 같은 것이 흘러넘치는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이것이 어떤 것인가" 물어보니 호세아 14장 5절에 나오는 이슬성신이라는 답을 들었다고 한다(참고; 전도관 역사는 구세주를 출현시킨 역사였다, 47쪽).

이처럼 이슬성신 은혜를 처음 받은 박 장로님은 수십 년간의 전도관 역사 가운데 '이슬성신'을 경축하는 절기를 만들지 않다가 느닷없이 1981년 새해 첫날을 '이슬성신절'로 제정하였다. 그것은 '이슬성신'의 주인공이 되시는 구세주 조희성 선생이 출현하였기 때문이었다. 조희성 선생은 박 장로님이 부어주는 '이슬성신'으로 자신 속의 마귀를 완전히 정복하여 죽이고 1980. 10. 15. 구세주가 되었으므로 그 다음해인 1981. 1. 1.을 '이슬성신절'로 제정하였던 것이다. 그것을 이어받아 승리제단에서는 '이슬성신절'을 절기로 지키고 있다.

다양한 형태의 이슬성신 사진 4장

이슬성신의 본질

인류가 죽음의 사슬에 묶여 평생 살다가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것은 사망의 신(마귀)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이다. 잘났거나 못났거나 누구나 마귀의 포로로서 한 평생 살다가 죽는다. 사람을 죽이는 것은 마귀이다.

사망권세를 쥐고 있는 마귀를 이기는 하나님의 영이 바로 '이슬성신'이다. 따라서 이슬성신은 영생하는 영이요 빛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슬성신만 받으면 사망을 이기고 영생하게 되어 있다.

이슬성신=조희성 구세주

조희성 선생은 죄인으로 이 세상에 오신 후 죄를 벗고 구세주가 되셨다. 인간의 육신이란 죄의 옷이며 따라서 육신을 가졌다는 것은 죄인이라는 말이다. 즉 예수처럼 태어날 때부터 의인이란 말은 죄가 무엇인지 몰라서 하는 말이다.

조희성 선생이 1980. 10. 15. 이긴자가 되었다는 것은 죄의 옷을 벗었다는 뜻이며, 그때에 육신을 초월한 존재가 되었다는 말이다. 다시 말하자면 완전히 하나님의 신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이고, 이슬성신이 되었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죄인으로서의 조희성과 죄의 옷을 벗은 후의 조희성은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존재이다. 후자로서의 조희성은 이기신 하나님의 신으로 변화된 조희성이니 그러한 존재를 감히 인간이 어떻게 가늠할 수 있겠는가. 수억천만 개의 몸으로 분신(分身)을 하고, 풍운조화를 마음대로 하고, 우주를 조종하는 그런 존재의 실체를 어느 누가 감히 측량할 수 있고 상상할 수 있겠는가. 무소부재(無所不在)하시고, 온 우주에 편만(遍滿)하시며, 전지전능한 신이신 조희성 구세주를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조희성 구세주는 결코 죽을 수 없는 존재이며 영원토록 계시면서 인류를 영생하는 하나님으로 변화시킬 전지전능한 구세주이시다. 누구든지 조희성 구세주를 마음속에 새기면 소원을 이룰 뿐만 아니라 하나님(부처님)으로 거듭나게 된다. 2015년에는 우리 모두 하나님(부처님)으로 거듭나자.*

김중천 기자

금주의 말씀 요절

전 세계를 향하여 선포한다(51)

"사람이 하나님이 되는 것이 도통(道通)이다"

사람이 하나님이 되는 것이 도통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완전히 도통한 첫 번째 사람입니다. 이긴자는 자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온 세상 마귀를 다 이긴 이긴자입니다.

이 길은 눈을 감고 기도만 해서 되는 길이 아닙니다. 산속에 가서 도를 닦는다는 것은 도 닦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 틈에서 수없이 부딪치는 가운데서,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미움이나 불평불만 등 내 속에서 일어나는 오만 가지 감정을 이기고 어디서든지 누구하고라도 조화롭게 일을 해 나갈 때 그가 바로 이긴자인 것입니다.

누구든지 내 몸처럼 여기는 생활 속에서 누구의 잘못도 내 잘못, 누구의 죄도 내 죄로 여기는 마음이 이루어졌을 때, '나'라는 의식이 저절로 없어집니다. 누구든지 내 몸처럼 여기면 '나'라는 의식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를 이기는 비결이요, 구원 얻는 비결이요, 영생 얻는 비결이요, 도통하는 비결입니다.*

구도의 길

고통을 받아들이고 함께하면 하나님의 마음과 만난다

삶은 고통의 연속이라 우리는 살다보면 고통스런 순간에 직면하게 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통을 직면하는 순간 그것을 회피하거나 도망치려고 한다. 이처럼 고통을 회피하려는 것이 일반적인 통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지 않고서는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그들은 아주 심한 고통의 상황을 이겨내고 성공했다는 일화 또는 에피소드가 한 편 이상은 있다.

수행자들에게도 고통은 반드시 따른다. 고통만을 위한 수행은 잘못된 것이지만 수행에 고통이 없다면 그것은 환상일 것이다. 그러한 고통을 이기고 승리하여야 높은 경지에 올라갈 수 있는 것이다.

수행자들이건 일반인들이건 간에 '나라는 의식(에고)'은 결코 고통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다. '나라는 의식(에고)'은 편함을 추구하지 고통과 마주하기를 극히 꺼린다.

고통의 순간을 당할 때 그 고통을 회피하지 말고 받아들여야 한다. 고통을 받아들이면 '나라는 의식(에고)'은 내 마음에서 사라지기 시작한다. '그래! 내가 이 고통의 맛을 보리라' 마음먹고 적극적으로 맛을 음미하기 시작하면 '나라는 의식(에고)'은 물러나 버린다. 고통을 받아들이는 연습을 계속하면 '나라는 의식(에고)'의 마음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기쁨의 마음이 자리 잡게 되어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은 느끼게 된다.

하나님의 마음은 '영생을 확신하는 마음', 누구든지 내 몸처럼 여기는 마음, 기쁨의 마음이라고 조희성 선생께서는 말씀하시지만 이러한 마음들은 절대의 하나님 마음이므로 쉽게 느껴지지 않는 마음이다.

따라서 고통을 받아들여 음미하는 훈련을 계속하면 '나라는 의식(에고)'이 사라지게 되므로 하나님의 마음을 쉽게 체득 감지할 수 있다.

육체의 작은 고통이나 통증에서 시작하여 마음으로 그 고통이 이동하고 그 고통과 잠시 함께하는 시간을 훈련 반복함으로써 고통을 녹여내는 시간을 단축하여 가면서 하나님 마음을 갖는 시간을 늘여갈 때 우리의 문제들도 함께 녹아내리어 사라진다. 이렇게 고통과 함께한 시간을 점점 늘려가면 고통을 감내하는 데 자신감이 생긴다. *

윤금옥 기자

2015년 '변화를 입자'

'자유율법실천운동'을 벌인 지 2년이 되었다. 김상욱 신도회장이 2013년 시작한 이 운동은 2년이 지난 지금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 보인다.

첫째, '누구든지 내 몸처럼'이라는 외침이 전 성도들의 인사법이 되었다. 둘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부분의 성도들이 예배 30분전에 입실하여 준비찬송과 기도를 하고 있다. 셋째, 주님말씀 요절을 전국적으로 암송하고 있다.

그 결과 승리제단 성도들은 항상 얼굴에 웃음을 띠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예전 같으면 화를 버럭 낼 상황에서도 잘 참고 이겨내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성도님들 개개인이 성숙된 신앙의 모습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아직 부족한 부분도 더러 보인다. 어떠한 경우에도 화를 내서는 안 되고,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했어도 감정을 드러내서는 안 되는 것이 자유율법이다. 자유율법은 그냥 좋은 말이 아니라 실천해야 되는 율법이다. 실천하지 않으면 그날에 심판에 걸려 지옥에 떨어지고야 마는 무서운 율법이다.

그래서 윤봉수 대표는 "새해에는 전 성도들이 변화를 입는 해가 되어야 한다"고 2015년 활동 방향을 정했다. 윤 대표는 "이슬성신 은혜를 받기도 어렵지만 받은 바 그 은혜를 간직하는 것은 더욱 어렵다. 은혜를 간직하지 않으면 절대 변화를 입을 수 없다. 변화를 입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자신 속에 가장 강한 마귀와 싸워서 이겨야 하는데 어느 정도 이기다가는 또 지고, 이기다가는 또 넘어지고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혈기마귀가 센 사람은 혈기마귀에 걸려 넘어지고, 음란마귀가 센 사람은 음란마귀에 걸려 넘어진다. 자신 속의 대장마귀에게 항상 져서 신앙이 자라나지 않는 것이다. 새해에는 받은 바 은혜를 잘 간직하여 자신 속의 가장 강한 마귀를 꼭 때려잡아 죽이도록 하자"고 말했다.

윤 대표는 또한 새해에 변화를 입기 위해서는 첫째, 매일 예배를 보아야 하며, 둘째는 아침 저녁으로 30분씩 박멸소탕 기도를 꼭 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매일 예배를 보는 것이 마귀를 죽이는 첫 번째로 강력한 무기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이다. 매일 예배를 보지 않으면 죽었던 마귀가 도로 살아난다. 마귀 죽이는 데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아침 저녁으로 30분씩 박멸소탕 기도를 하는 것이다. 박멸소탕 기도의 중요성은 다음날 예배시간에서 알 수 있다. 박멸소탕 기도를 열심히 한 후에 예배를 보면 음성과 손뼉소리가 어제보다 더 큰 것을 알 수 있다.

2015년은 받은 바 은혜를 잘 간직하여 자신 속의 대장마귀를 기필코 이기는 해로 만들자.*

당신을 영생의 세계로 안내하는 승리신문

성금계좌 : 우체국 103747 - 02 - 134421 예금주 : 이승우